

화순서 민주당 지역 경선 각축전

민주당 나주·화순, 손금주 신정훈 김병원 3파전

지역정가 승부예측 불허...혁신도시·화순포심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경선지역 7곳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 나주·화순은 당초 예상대로 현역의원인 손금주 의원과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치열한 3파 구도를 구축하며 21대 총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곳으로 부상한 나주·화순 선거구의 최종 경선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지역정가에서는 선부른 예측을 불허하는 분위기다.

일단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약간 앞서는 모양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알앤씨치가 1월 16~18일 실시한 '21대 총선 광주·전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서 신정훈 전 비서관은 전체 응

답자의 33.6%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렸고, 이어 손금주 국회의원 26.7%,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2.8%를 얻었다.

광주일보와 kbc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월 18~20일 실시한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는 신정훈 전 비서관은 32.4%, 손금주 국회의원 27.7%,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24.4%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자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나주시의원은 "3명 중 누가 일반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3명의

후보 모두 탄탄한 경력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를 대상으로 24일부터 최종 경선을 실시해 빠르면 28일부터 공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내 경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후보들의 지역발전 공약전쟁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가급적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들을 잇따라 쏟아내며 표심잡이에 분주하다.

차별화를 위한 각 후보 캠프의 아이디어 경쟁도 두드러지면서 '에디슨시티', '브레인푸드' 등 신조어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캠프 관계자는 "공약 차별화를 위해 매일매일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며 "가급적 네거티브 선

거전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변수는 다양하다.

우선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나주와 화순은 인구 3만여명의 빛가람혁신도시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나주와 화순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지난 17대 총선 이후 화순 출신 인물이 당선된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던 터라 화순지역 표심의 향배 역시 이번 경선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각 후보들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여부도 승부를 결정하는 중대변수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불거진 '원리당원 불법조회'에 연루돼 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서는 '도덕성' 측면을 놓고서 논란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김병원 전 회장은 전국 조직인 농협중앙회장 출신으로 초반 기세와 달리 상승세가 주춤하는 형국이다.

손금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 손학규 1인 정당 전략할 듯

바른미래당은 18일 '안철수계' 의원들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당에 호남계 의원들 역시 탈당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1인 정당으로 전략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섭·최도자·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태규·김수민·임재훈·이상돈 의원 등 9명의 제명 처리안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 유승민 전 대표의 바른정당이 통합해 창당한 정당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을 겪으며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참패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쳐 손학규호를 출범시켰으나 지난해 4·3 재보궐선거마저 참패하면서 손 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당은 손학규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안철수계·유승민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퇴진파로 갈라졌다. 유승민계 의원들은 이후 탈당해 자

유한국당과 통합해 '미래통합당'으로 향했으며, 안 전 대표 역시 당을 탈당해 '국민의당(가칭)'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호남계 의원들 역시 손 대표에게 지도체제 교체 등을 요구했지만, 손 대표는 완강히 거부했다. 아울러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마저 거부하자 호남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할 것이다. 호남계 의원들은 이후 대안신당·평화당과의 통합 논의에 따라 탈당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한 채 국민의당으로 향할 수 있게 됐으며, 미래통합당 행을 천명했던 김중로 의원 역시 당적을 옮길 수 있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끝까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왔으나, 새로운 정치 무대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갖겠다며 제명을 요청해, 해드리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 맞다 생각했다"며 "부디 목은 헤어지지 않자, 마음을 갖고 있다. 성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역할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준 "근소한 차라면 黃 장래 탄탄"

개혁적 보수라는 평을 듣고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18일 이날엔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종로대전'과 관련해 "황 대표로선 밀집이 없는 싸움인데 일찍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황 대표가 저도 크게 질 것 같지 않다"고 점진 그는 근소한 패배가 오히려 황 대표 앞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의미에서 출마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가 "황교안 대표 종로출마 타 이미지가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고 묻자 "늦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처음부터 그렇게 승부를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 황 대표가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닌 까닭에 결심을 빨리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치적 승부를 해본 사람이라야 과감하게 결정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망설였던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첫 의원총회부터 '술렁'...정병국 "왜 우리만 인사"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17일 통합 이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통합에 대한 뒷장정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는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새로운보수당 출신의 정병국·이혜훈·오신환·유의동 의원, 미래통합당전진4.0 대표를 지낸 이연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총장 앞쪽 좌석에는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들을 비롯해 새로

수당 출신 의원들과 이연주 의원 등의 자리가 마련됐고, 각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나머지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는 이름표가 없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는 중도보수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확인하고 모두 하나가 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정 의원 등을 차례로 호명했다.

정 의원은 심 원내대표 호명 이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머물다가 연단에 섰다. 그는 "이 앞에 연단에 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며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아니냐"며 "왜 자리를 따로 만들어 우리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지, 인사를 할 것이라면 다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면식으로


가면 안된다"며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이다. 여러분도 다같이 인사를 하고 함께 해야지, 왜 우리만 인사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심 원내대표는 "일어나서 다같이 인사를 하자"고 했고, 민경욱 의원은 "서로에 대해 경례"라고 하며 이해훈 의원에게 인사말을 하자고 했지만 심 원내대표는 손으로 취소하자는 제스처를 보였다.

결국 이날 의총은 기념촬영 순서 없이 '앞으로 미래' 하나로 통합 '미래통합당'이라는 플래카드를 이용한 퍼포먼스에 이어 황 대표의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서로 바쁘니까 상견례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분위기가 정리되기 전 이미 연단 외중에 "저는 좀 해야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해야 하는 것"이 라는 인사말을 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